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9)

김인구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핵 문제를 계기로 최근 2~3 년간 사이 북한은 세계 무대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보여오고 있다. 김일성 사후 북한 외교는 미·일을 비롯한 서방과의 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식량난, 고위층의 탈북 러시 등으로 흔들리는 체제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오랫동안 이념과 지역성을 탈피하지 못했던 북한 외교가 국제 무대에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기구, 인적 구성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노동당이 통치하는 북한에서 외교 전면에 나선 외교부와 당 국제부는 어떠한 관계인지도 궁금해진다.

북한의 모든 국가 기관은 노동당의 통제를 받는다. '유일적 영도' 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당의 통제는 관련 당 부서를 통해 정책 결정, 실무 집행, 간부들의 인사와 당원으로서의 생활에 대한 평가 등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정무원의 경공업위원회는 중앙당 경공업부에서, 교육위원회는 과학교육부가 각각 지도한다. 모든 부서의 인사

문제는 당 간부부에서 관장한다.

외교부와 당 국제부 관계도 비슷하지만 외교부만은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보장받고 있다. 외교부가 이처럼 당 국제부의 '시집살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 것은 80년대 초부터였다. 그 이전 朴成哲, 許鏞 등 역대 외교부장이 당 국제부장보다 한 급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제부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자주 충돌했다. 이를 어느 정도 조정하기 위해 김정일이 1982~83년 사이 외교부의 기능을 강화시킨 것이다. 반면에, 당 국제부의 인원과 역할이 줄어들었다. 600여 명 정도이던 국제부 인원을 150여 명으로 감축시켰으며 당 외교만 전담토록 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당 국제부로부터 완전 독립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부부장들의 위상만 보아도 아직도 국제부가 높다. 생필품 공급도 질과 양 모든 면에서 외교부가 국제부만 못하다. 주택도 마찬가지이다. 국제부 부부장들은 중앙당 아파트에 모여서 산다. 외교부에선 제 1부부장 姜錫柱만이 이 곳에 산다. 대우도 외교부 부부장이 240~250 원 정도를 받으나,

국제부 부부장은 260~270 원 정도를 받는다.

외교 정책을 비롯한 북한의 모든 정책은 체제 고수를 위한 것이다. 단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 부처간에 차이를 보일 수는 있지만 목적에 배치되는 案을 내놓지는 않는다. 또 외부에 발표되는 성명회견 등이 모두 최종적으로 김정일의 비준을 거친다.

외부에서 강·온파간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부처간의 상응한 반응들도 이미 짜여진 각본에 따른 것이다. 남한이나 미국 등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고 북한의 진의를 간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전술이다. 정책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전술을 검토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한다.

각종 대북 제의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은 해당 부서에서 초안을 작성한다. 일례로 4자회담에 대한 대응은 남북 관계나 군축·평화 문제를 다루는 12국(조국통일국)에서 다루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발표 방법까지도 대응 방안 작성 과정에서 다뤄진다. 외교부 대변인 회견으로 할 것인지, 담화로 할 것인지, 외교부 성명을 할 것인지는 대북 제의의 비중에 따라 결정한다.

대응 방안이 만들어지면 노동당 국제부의 검토 과정을 거친다. 국제부는 그 방안이 '주체 외교'에 합당한 것인가를 분석하고, 집행 과정을 지도·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

다. 국제부의 검토를 거친 방안은 김정일의 비준을 받아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것이다.

외교부는 부총리 겸 부장 金永南을 정점으로 1 명의 제1부부장과 10여 명의 부부장이 있다. 부부장들은 각기 몇몇 지역국이나 기능국을 담당한다. 대부분 대사 출신들이다. 말단인 지도원에서 부부장까지 오르는 데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15~20 년이 걸린다. 부장직속의 참사실에서는 4~5 명의 참사와 지도원을 합쳐 10~15 명이 근무한다. 직급은 책임 참사의 경우는 제1부부장급이며, 나머지 참사는 부부장과 국장 사이이다. 지난해 쿠알라룸푸르 북미 협상에 참여했던 김계관도 이곳 출신이다.

잠비아 주재 북한 외교관 출신의 귀순자 현성일氏는 “참사실에서는 글과 작전이 다 나온다. 외교부 성명도 여기서 만들어지며 웬만한 전략도 다 이곳 작품이다”라면서 “때문에 전 현직 참사들은 대부분 외교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부장 아래에는 크게 지역-기능-보장(행사 보장, 재정 경리) 등 크게 3 부분으로 나뉘어 모두 35 개 내외의 局이 있다. 1국은 김정일의 방침을 전달하는 부서이며, 2~10국은 지역국이며, 90년대 들어 14국(일본국)과 16국(미국)이 각각 분리됐다. “미·일 외교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현성일氏가 말했다. 외교부의 전체 인원은 재외 공관원을 포함해 1,500여 명 정도이다.

외교부에서는 국교 수립, 조약 및 협정 체결, 해외 공관 운영 등 일상적인 외교 업무 외에 통상 및 친선 교류를 확대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특히, 해외 공관에서는 김일성·김정일의 우상 선전 사업과 물자 조달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김정일이 80년대 초 외교부의 기능을 강화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정일의 결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는다. 외교부장 金永南, 당 국제부장 玄峻極, 외교부 제1부부장 姜錫柱 등이다. 지금은 대남 사업을 맡고 있지만 당 비서 金容淳도 김정일의 측근으로 오랫동안 서방 외교를 담당했다. 黃長燁 국제 담당 비서와 국제부의 김재경·이화선·김재봉 부부장 등도 측근으로서 김정일의 외교 정책을 보좌하고 있다.

북한 외교관들은 대부분 평양외국어대, 김일성대학 등을 나온 엘리트 출신들이다. “개인적으로 만나 얘기해보면, 세계 주변 정세 등에 대해 밝고 우리와 별 차이없이 매우 합리적 사고를 하는 보통 외교관들”이라는 게 우리 외무부 실무자들의 평이다. 그러나 이들은 철저하게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북한 체제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뛰고 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金永南(부총리 겸 외교부장)

북한 외교의 사령탑으로 지난달 보름 가까이 중동 국가들을 순방한 데 이어 콜롬비아에서 열린 비동맹회의에도 참석했다. 최근 북한이 서방 외교에 주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비동맹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는 김일성 사후 비동맹권에서의 북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데 대한 차단 의도도 깔려 있다고 여겨진다.

김영남은 1954년 당 국제부 지도원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후 40년 넘게 외교 분야에서만 일해온 전문가이다. 1972년 당 국제부장을 거쳐 1975년 국제 담당 비서에 올라 10년 가까이 매년 3~5 차례 유럽과 남미, 아시아 각국을 순방하면서 외교력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공로로 1983년 말 許鏞의 뒤를 이어 정무원 외교부장에 기용되었다.

현재 대미·대일 외교를 중시하는 가운데 비동맹 외교 전문가로 10년 넘게 외교 사령탑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 한 차례도 권력 서열 10위권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다. 김일성·김정일의 신임이 두텁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1994년 7월 20일 김일성 추도 대회 때에는 김정일의 위임을 받아 추도사를 하기도 했다. 특히, 90년대 이후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북한이 고립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외교 총사령탑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해오고 있다는 평이다.

노련미와 함께 솜털을 뽑아 그 자리에 다시 박을 만큼의 꼼꼼함, 온화한 성품 등 외교관으로서의 자질을 골고루 갖추었다는 평을 듣고 있다. 1925년 2월 함북 명천에서 태어나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6·25전쟁 중 모스크바대학에서 유학했다. 김정일 군사무관을 맡았던 金斗南 대장이 친동생이다.

姜錫柱(외교부 제1부부장)

미국과의 핵협상을 통해 국제 무대에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북한 외교관이다. '협상의 명수'라는 별명에 걸맞게 1994년 10월 1년 반 넘게 끌어온 핵협상을 타결시켜 김정일체제의 앞길을 비교적 순탄하게 만든 주인공이다.

1991년 9월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시 수락 연설을 한 그는, 이미 1986년부터 매년 유엔 총회에 참석해 서방 외교관들과 낯을 익혀왔다. 유창한 영어 실력과 세련된 매너, 여유있는 표정 등 전형적 외교관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로부터 거의 매일 전화를 받다시피 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우며 김정일이 주최하는 개인 파티에도 예외없이 참석한다.

그는 金永南 외교부장을 제치고 김정일에게 직보할 때도 많다. 그러나 외교부장을 무시하거나 타고 앉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김영남의 밑에서 20여 년 동안 일해왔

다는 인연 때문이다. 김영남이 국제부장으로 있던 70년대 초 국제부에 첫발을 디디면서 그와 인연을 맺은 강석주는 1980년 국제부 과정을 거쳐, 김영남이 외교부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몇달 후 외교부 부부장으로 발탁되었다. 이어 1987년 제1부부장으로 올라 현재까지 對서방 외교를 현장에서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했으며, 1988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1990년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장을 거쳐 1991년 12월 당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러한 초고속 승진 또한 김정일의 신임없이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본격적인 김정일시대가 도래하면 김영남의 뒤를 이어 외교부장에 기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李種革(노동당 부부장 겸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참석해 서방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인물로, 외교부 소속이 아니면서 외교 분야에서 가장 역동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는 일본을 상대로 한 쌀외교에 나섰으며, 올해는 미국을 무대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뛰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6월 일본과의 쌀협상에서 능수능란한 협상술을 발휘해 주목받았다. 장외

에서 “자민당이 100만 톤을 지원키로 했다”는 말을 언론에 슬쩍 흘려 일본 협상팀의 입지가 좁아지게 만들어 유무상 30만 톤이라는 상당한 양의 쌀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에 앞서 3월 28일부터 30일 사이 평양에서 진행된 노동당대표단과 일본의 연립여당 대표단과의 회담에도 참석했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북일 수교 회담을 조속히 재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작년 초에는 金容淳-李種革 라인이 동남아 등에서 對日 접촉 창구로 가동되고 있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그의 직함은 다양하다.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외에 당부부장,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회 책임참사 등이다. 그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90년 1월 김일성이 이탈리아 국제관계연구소 총서기를 만나는 자리에 배설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주로 미국 인사들의 북한 방문시 영접을 맡는 등 북한의 대미 접촉의 첨병 역할을 담당해왔다.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카터 前 美대통령도 그가 영접했다.

70년대 말부터 유네스코 주재 대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대표부 북한 대사 등 오랜 기간 서방 외교에 몸담은 경력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명석한 두뇌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고 맡은 업무에 충실하다는 평이다. 중도 개혁의 성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양외국어대학 불어과를 졸업했으며 越北

작가 李箕永의 둘째 아들로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의 남편인 이평의 동생이다.

許鐘(前유엔 주재 차석 대사)

90년대 들어 대미 외교의 실무 창구를 맡아오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인물이다. 1994년 초 외교부 순회 대사로 귀임할 때까지 5년여 동안 유엔 주재 부대사를 지내면서 대미 관계를 전담하다시피 해왔다.

지난 1992년 1월 金容淳 당비서와 아놀드 센터 美국무부 정무차관간의 회담을 시발로, 1993년의 북미 핵협상에 이어 1994년 제네바 3단계 고위회담까지 북한측 대표단으로 참석해 실무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다. 특히, 1993년 여름부터 한성렬 정무참사와 함께 8년 동안 핵문제를 놓고 미국측과 마라톤 협상을 벌여 북한측이 시종일관 주장해오던 ‘일괄 타결안’을 관철시켰다. 당시 미국측 수석 대표였던 허바드 국무부 부차관보는 그의 끈질김에 혀를 내둘렀다는 후문이다.

1990년 이후 미국에서 열린 군축 및 핵 관련 학술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호리호리한 키와 깔끔한 인상 등 기존의 북한 외교관들과는 다른 외모와 유창한 영어 실력 등으로 유엔 및 서방 외교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외교관으로서 잘 흥분하고 거친 태도를 보여온 朴吉淵 前유엔 대사와는 곧잘 비교될 정도로 부드럽고 합리적인 성향의 인물로 알

려져 있다.

1945년생으로 외국어대학을 졸업한 후 외교부에서 통역관으로 근무했다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1991년에 사망한 許鎡의 친인척이라는 설과 許貞淑의 아들이라는 설(허정숙의 남편인 崔昌益이 종파분자로 숙청당함으로써 자녀들이 許씨 성을 따랐다고 함)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宋浩景(외교부 부부장)

얼마전 적군파의 위폐 사건에 북한이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게 됨에 따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캄보디아 주재 대사에서 해임되었다. 그는 최근 들어 북미 평화협정체결과 대미 관계 개선 문제에 깊숙이 관여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94년 8월 정부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錢其琛 외교부장, 唐家璇 외교부 부부장을 잇따라 만나 군사정전위 중국 대표단의 철수 결정을 이끌어냈다. 또 카터 前 美대통령을 비롯해 폴 사이먼과 머코우스키 상원의원, 리처드슨 하원의원, 릴리 前주한 대사 등 최근 미국 인사들의 북한 방문에 빠짐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80년대 말부터 외교부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 소장을 겸하면서 崔宇鎭 외교부 부부장과 함께 군축 관련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

해 북한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對서방 외교를 맡아왔다.

1965년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노동당 국제부에 들어가 10여 년을 근무했다. 이어 70년대 중반 2~3 년간 직종(노총) 부위원장으로 잠시 활동하는 동안 동독, 헝가리, 루마니아 등 동구라파와 중남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해 외교 감각을 쌓았다. 1977년 유고 주재 참사관으로 부임해 직업 외교관으로 나서, 1979년 프랑스 주재 통상대표부 참사관, 1981년 FAO 주재 대표 등을 거쳐 1989년 7월부터 외교부 부부장으로 일해왔다.

김계관(외교부 부부장)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을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매듭을 푼 주인공이다. 지난해 4월 베를린 북미 경수로 전문가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한 때 핵문제가 난관에 봉착했으나, 제네바 핵협상에도 참석했던 그가 나서 타결지었던 것이다. 당시 '한국형과 한국 중심 역할'을 명문화하는 데 끝까지 반대해 결국 관철시켰다.

그는 1975년과 1985년 두 차례에 걸쳐 유엔총회에도 참석하는 등 서방 외교의 경험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인물이다. 매사를 매끄럽게 처리하고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외교적 감각도 뛰어나며 영어와 불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92년부터 북미 고위회담 수행원으로 참가했던 인물이다. 1992년 2월 金容淳 당시 노동당 국제 담당 비서와 센터 美국무부 차관보간의 회담에 참석했으며, 1994년 10월 姜錫柱·갈루치간의 베를린 북미 고위회담에도 수행했다.

1938년 함북에서 태어나 국제관계대학 불어과를 졸업한 뒤, 외교부에 들어가 주로 국제기구국과 비동맹국에서 근무했다. 1969년부터 4~5년 정도 알제리 주재 대사관에 근무했으며, 1975년 외교부 1등서기관에까지 올랐다.

북경에서 유학한 妻가 金聖愛의 불어 통역을 맡아 가깝게 지냈다는 이유로, 70년대 중반 김정일이 추진한 '결가지 제거' 작업에 휘말려 부부가 함께 한동안 활동을 못했다. 승진은 물론 외국에 나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거의 연금 생활을 하다시피 했다.

80년대 중반부터 외교부장 김영남의 '보중'으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4년 11월 김영남을 수행해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으며 이듬해 9월 외교부 전문위원으로 기용되었다.

김병홍(외교부 조국통일국 국장)

금년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열린 북미 유해 송환 협상에 북한측 대표로 참석했던 인물이다. 그는 대외적으로 '군축 및 평화연구소

부소장' 과 '외교부국장' 을 사용했다. 일부에선 그를 '외교부 국제국장' 으로 부르고 있으나 '조국통일국 국장'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성일氏は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외교부 12국인 조국통일국이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라면서 "12국 담당 부부장이 소장 직함을, 12국 국장이 부소장 직함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현氏는 "과거 송호경氏도 12국 담당 부부장으로 있으면서 '군축 및 평화연구소 소장' 이라는 직함으로 대외 활동을 했다"면서 "이번 유해 협상에 참석하는 김병홍도 12국 국장"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5월 평양을 방문해 김영남, 최우진, 김병홍 등과 만나 양국간의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했던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陶炳蔚 고급연구원도 "김병홍이 조국통일국 국장"이라고 확인했다. 조국통일국은 남북한 문제와 평화협정 및 군축 문제 등을 다루는 부서이다.

崔宇鎮(외교부 부부장)

오랫동안 남북 관계와 연관된 업무를 맡아 온 인물로 '조국 통일(남북 관계)' 담당 부부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북한을 방문한 중국 외교부 산하 연구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이 親韓 정책을 펴고 있는 데 대해 항의했다고

한다. 심지어 중국측에 한중 관계가 계속 가까워지는 경우, 북한이 '대만 카드'를 쓸 수도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그는 지난해 6월 김일성·카터 회담에도 배석했다. 남한과 연계된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 문제에 언제나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1934년생인 崔宇鎭은 1975년에 외교부에 첫발을 디딘 이후 70년대 덴마크 주재 참사관, 가나 주재 대사를 역임했으며, 외교부의 조국통일국 국장을 맡으면서 남한과 연계된 외교 무대에 자주 얼굴을 나타냈다. 그는 군축 및 평화연구소 부소장이거나 외교부 순회 대사라는 직함으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 열리는 군축 문제 국제 회의에 참석했다. 1990년 남북고위급회담에 참석한 데 이어 1992년에 구성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북측 위원장도 맡고 있다.

남북 회담장에서는 상당히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외교부 내에서는 '아침쟁이' 등으로 좋은 평은 못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교관 출신의 한 귀순자는 崔宇鎭에 대해 '윗사람에게 잘하고 아랫사람에게는 딱딱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최수현(외교부 부부장)

지난해 유엔에서 북한의 金永南 외교부장 대신 기조 연설을 맡은 최수현은 국제기구국

을 담당하는 부부장이다. 그는 1994년 제49차 유엔총회에도 대표 단장으로 참석, 기조 연설을 했다. 당시 기조 연설에서 그는 김정일을 '최고 영도자'로 호칭해 공식 승계 여부와 관련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1986년부터 외교부 부부장을 맡고 있으며, 북한 유네스코민족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일 북한과 유엔아동기금과의 협조 협정체결 10주년을 맞아 유엔아동기금대표단을 평양으로 초청해 연회를 마련했으며, 1994년 10월 북한 주재 유엔개발계획(UNDP) 대표가 마련한 '유엔의 날' 연회에 북한측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최수현은 1991년 12월 아라파트 PLO 의장과 김일성간의 회담에 배석하는 등 90년대 초까지 주로 비동맹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외교 활동을 계속해왔다. 1981년 외교부 순회 대사로 있으면서 許談 당시 외교부장의 비동맹외상회의(인도) 참가시 수행했으며, 1984년 6월 외교부 비동맹국장으로 평양에서 열린 비동맹 국가 식량 및 농업 부문 국제관계 전문가회의 의장을 맡았다.

1936년 평양에서 태어나 60년대 말 콩고 주재 대사관에서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1980년 외교부 순회 대사로 귀국한 이후 줄곧 외교부에서 일해왔다.

黃長燁(노동당 국제 담당 비서 겸 최고인민회의의 외교위원장)

북한 정당 외교의 사령탑으로 수교 관계가 이뤄지지 않은 나라들과의 외교 활동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활동 영역은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는 물론, 러시아와 동구, 그리고 서방 등 전세계에 미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남북 경협에까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장엽은 주체사상을 체계화하고 김정일의 후계자 이미지 관리를 전담해온 사상 이론가이다. 김정일의 백두산 출생설과 호칭 문제, 각종 신화 조작 등은 모두 그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70년대 중반 비동맹권을 대상으로 주체사상연구소를 개설하는 등 주체사상 홍보 외교 경험을 토대로 당 차원의 외교를 맡고 있으며, 1993년 말부터 최고인민회의의 외교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 실무보다는 정당간의 이념적 유대 관계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출생에 대해서는 1925년 함북 주을이라는 설과 1922년 평남 강동군(현 평양시 강동군)이라는 설이 있다. 그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강某씨는 “황장엽은 1922년 강동군 승호리에서 태어나 1942년에 평양상고를 7회로 졸업했다”면서 “졸업후 만나지 못했으며 일본 법정대학에 유학갔다가 돌아와 평상이 바뀐 평양전문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귀순자에 의하면 황장엽은 김일성종합대학을 거쳐 모스크바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1954년부터 김일성종합대학 철학 강좌를 맡았다가 1959년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기용되었다. 1965년 김일성대 총장에 임명되었으며 1972년부터 1983년까지 최고인민회의의 의장을 지냈다.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당비서로 선임되었다.

玄峻極(노동당 국제부장)

북한측에서 친중파의 거두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그는 북한이 중·소 갈등 속에서 자주 외교 노선을 표방한 1966년부터 1977년까지 10여 년간 중국과의 관계를 현장에서 원만하게 이끌어온 장본인이다. 연안파의 숙청과 유일지배체제 및 김정일 후계 문제 등으로 한동안 냉각기를 가졌던 북중 관계를 되돌려 세운 것도 그의 공로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 그는 1988년 이후 잠시 「로동신문」 책임 주필로 자리를 옮긴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당 국제부에서 줄곧 중국을 비롯한 對아시아 외교를 담당하고 있다.

金容淳 대남 담당 비서와 북한 권력 핵심부에서 20년 가까이 라이벌 경쟁을 벌여왔으나 결국 완패했다. 나이나 외교관 경력은 현준극이 앞서지만, 승진 경쟁에서는 항상 김용

순이 승리했다. 김정일의 신임이 더 두터웠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두 사람의 경쟁 관계가 시작된 것은 玄峻極이 駐中 대사를 마치고 당 국제부 부부장으로 기용된 1977년경이다. 이후 1980년 중반까지 김용순은 서구라파, 현준국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외교를 각각 맡아 담당 분야는 달랐지만, 외교 정책 결정 과정 등에서 빈번히 갈등을 빚었다. 이러한 갈등 관계는 1983년부터 승진 경쟁으로까지 이어졌다.

두 사람간의 갈등을 보다 못한 김정일은 두 사람을 떼놓기로 결정하여, 현준국을 「로동신문」 책임 주필로 보내고 김용순을 국제부장으로 재기용했다. 이후 김용순은 1990년 국제 담당 비서로 승진했으며 1993년경 대남 사업을 맡게 되었다. 현준국은 김용순이 대남 담당 비서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야 국제부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주량이 세서 김정일의 주연에 함께 참석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 자리에서도 다투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6·25전쟁 중 모스크바대학에서 유학했으며 전쟁 직후 당 중앙위 선전부 과장을 시발로 「로동신문」 편집부장·부사장을 거쳐 노동당출판사 책임 주필을 역임했다.

孫成弼 러시아 주재 대사와 朱昌俊 중국 주재 대사는 장관급에 해당하는 대사들이다. 두 지역은 상대국과의 관계에도 밝아야 하지만, 국제 문제 특히,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을 분

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곳이다. 손성필과 주창준은 김정일의 신임도 두텁다. 손성필은 과거 북한적십자회 위원장으로 남북적십자회담에 참여하기도 했다.

현직 대사 가운데 김정일의 신임이 두텁기로는 스위스의 이철(이수영) 대사가 제일이다. 成蕙琳씨 일가의 서방 탈출때 언론에도 등장했던 그는 김정일의 비자금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의전장 출신으로 붙어 실력이 뛰어나다. 노동당 부부장 직함을 그대로 가지고서 대사로 파견된 이례적인 인물이며, 그의 출입은 외교부 라인에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언제나 김정일과 직접 통한다는 것이다. 續